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26
----------	-----

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3일

발 의 자 : 이상태 의원 외 9 인

1. 주 문

-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완벽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95년에 대용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를 준공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원자력 기술국으로 부상시키고,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도시의 위상과 대덕특구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해왔음.
- 나. 그러나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친 원자력 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음.
- 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150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완벽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의결하여 각계에 건의하고자 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95년에 대용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를 준공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원자력 생산과 각종 재료 개발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원자력 기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도시의 위상과 대덕 특구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눈부신 발전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멀다하고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그 편리성만큼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못지않게 처리과정 역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는 지난 2004년 이후 무려 다섯 번째 발생한 사고로서, 안전 불감증 차원을 넘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로서 시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합니다.

첫째, 중앙정부(과학기술부)는 본 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원자력관련 관리감독 강화와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대시민 사과 성명서 발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 완벽한 방재 시스템 구축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그간 5회동안의 크나큰 사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하여 경주와 비슷한 5조원의 주민숙원사업비와, 로봇랜드·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도록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년간 이루어졌던 일련의 엄청난 사태에 대하여 단지 지방뉴스로만 치부하고 계신지 심히 궁금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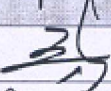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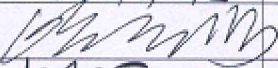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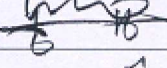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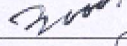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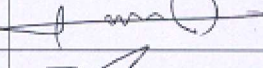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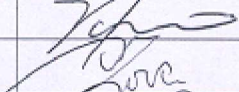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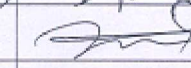

원자력기술은 그 첨단 기술만큼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기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0만 대전시민 모두가 완벽한 원자력 기술의 보호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7. 9.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찬 성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이 상 태		
김 학 원	김 학 원	
박 취 환		
송 재 용		
전 나 름		
신 준 흥		
김 재 경		
박 영 교		
박 회 진		
오 영 씨	